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무재해 원동력 되어

-한국남동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



▲ 처장 정은두

주말이면 의례 찾게 되는 공원. 도심 속 콘크리트 세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안식처인 썸이다. 산림욕을 하고 운동을 즐기며, 온 가족이 모여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작은 행복. 각박한 도심 속 도시민들의 위로이자 힘이 되어준다.

도심 속 공원같은 회사, 도심 속 정원같은 회사로 분당 신도시 안에 푸르름을 가득 채운 한국남동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처장 정은두)를 찾아가 자연과 어우러진 그들만의 안전 활동을 만나 보았다.

■ 철두철미한 안전

1990년대 초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 1993년 9월 준공되어 용인, 분당, 강남 등 수도권 일대에 전력과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한국남동발전(주)분당복합화력발전처는 2002년 9월 국내 발전회사 중 2번째로 KOSHA 18001 인증을 받았고, 지난 5월 31일에는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바 있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이



다.

그래서인지 분당복합화력발전처의 안전은 한치의 틈도 없다. 작업전 담당부서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수립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모두 개선되지 않을시 작업승인을 내지 않음은 물론이다. 전기, 난방열 등 필수생활에너지를 공급하는 이곳은 공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공기 준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작업전 철저한 안전관리로 양질의 품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는 동일인이 3번 이상 지적되면 사업장출입을 금지하고, 개인의 지적 3번은 회사의 지적 1번과 동일시하여 회사에서도 3번이상 지적당하면 추후 작업을 제한하는 등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전체에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정은두 처장은 안전을 위해 들어가는 기본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한다. 안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안전은 물론 품질 향상과 사고처리비용 절감이라는 배가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복합화력발전처의 투자활동은 끝이 없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푸른 신호등 제도로, 안전보건 경영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안전지적활동이다. 안전지적시 빨간 신호등, 처리 기간중 황색 신호등, 조치완료시 푸른 신호등으로 점등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지적 처리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과거, 서류로 일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부서간·개인간 마찰도 없애고 서류작성 및 비처로 인한 시간도 절약될 뿐 아니라 제안내용의 가중치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하고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는 물론 안전의식 확립을 유도한다.

매일 아침 8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80TM회의에서 그날의 안전점검 및 대책을 수립하고, 무심코 전기판넬문을 열었을 때 경고음 및 메시지를 발생시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단기 판넬 안전경보설비를 자체 개발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안전감시 무선카메라는 현장점검 시간 외에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불안



전한 상태나 행동 발견시 방송으로 지적,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안전보건경영 전산망을 잘 갖춘 한국남동발전(주)는 7개 사업장이 모두 연계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끊임 없는 노력의 결과로 2003년 제11회 안전경영대상 에너지 사업분야 대상 수상, 2004년 산재예방 유공단체 노동부장관 표창수상 등 항상 정진하는 분당 복합화력발전처로 거듭나고 있다.


■ 깨끗한 회사, 주민과 함께하는 회사

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지저분하다' 일 것이다. 그러나 분당복합화력발전처에 와 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안전과 더불어 환경에도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곳은 도심속의 공원화 발전소로, 청정연료(LNG)를 사용하여 연소시 대기를 오염시키는 황산화물이나 분진이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소내 종합폐수처리장을 거쳐 정화 후 분당천으로 방류한다. 또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기기 사용은 물론 완벽한 방음설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생생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전력 및 열생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전기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유치원, 초·중·고교생의 견학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부서별로 사회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생필품 전달, 목욕·청소 및 합동결혼식 도우미 봉사 등으로 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밖에 2005년도에는 OHSAS 18001을 도입하고, 무재해 15배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짐한다.

정은두 처장의 확고한 안전 마인드와 유성균 품질안전과장, 김호근 안전관리자의 발빠른 현장 중심의 안전, 그리고 전 직원이 하나되는 단결력.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무재해 15배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들의 행동과 목소리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기자>